

“다신 실패 않겠다”

문 대통령 “노무현 추도식 임기 중 마지막 참석… 성공한 대통령 돼 올 것”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8주기 추도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임기 동안 (노무현 전) 대통령을 가슴에만 간직할 것”이라며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매년 추도식에 참석해 왔지만 대통령 신분으로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을 뜻을 밝히면서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돼 임무를 다한 다음 다시 찾아뵙겠다”고 말했다. 한 청와대 참모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노무현 정부 2기가 아닌 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알리는 독립 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자신이 참여했던 노무현 정부에 대한 반성도 인사말에 담았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는) 이상은 높았고 힘은 부족했다”며 “현실의 벽을 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의 꿈을 참여정부를 뛰어넘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아름다운 나라로 확장해야 한다. 다 함께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자”고 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의 좌절 이후 우리 사회, 특히 우리 정치는 더욱 비정상상을 향해 거꾸로 흘러갔다”며 “정상을 위한 노력이 특별한 일이 될 만큼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심각하게 비정상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혁은 문제인의 신념이기 때문에, 옳은 길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 관계기사 6면



007 제임스 본드

로저 무어 별세

▶▶ 23면

“상상에 의한 기소”

박 전 대통령, 최순실과 함께 첫 정식 재판 출석… 18개 혐의 모두 부인



문재인 대통령과 영부인 김정숙 여사(오른쪽)가 23일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왼쪽은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최순실씨(오른쪽)가 23일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 나란히 앉아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가운데는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 임현동 기자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23일 열린 첫 정식 재판에서 18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의 기소는) 추론과 상상에 기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검찰이 삼성 관련 혐의 입증을 위해 제출한 153명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재판은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렸다. 21년 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섰던 법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세 번째로 이곳의 피고인석에 앉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이 재판에는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도 함께 피고인석에 자리했다. 주임검사인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은 공소사실을 밝히는 절차에서 “전직 대통령이 구속돼 법정에서 서는 모습은 불행한 역사의 한 장면일 수 있으나 대통령의 위법행위에 대해 사법절차에 따라 심판이 이뤄지는 법치주의의 확립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진술조서 증거 채택도 반대함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대기업 총수 등 사건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증인대에 서게 될 가능성도 커졌다.

재판부는 앞으로 주 2~3회, 많으면 4회까지 재판을 진행키로 했다. 25일에는 박 전 대통령만 출석해서 서류 증거 조사가 진행된다. 29일과 30일에도 공판이 열린다.

이동현·김선미 기자

offramp@joongang.co.kr

▶▶ 관계기사 4, 5면



U-20 월드컵 대표

아르헨 꺾고 16강

▶▶ 24면

또 테러당한 영국, 무방비 10대들 노렸다

맨체스터 공연장서 자폭테러

22명 사망… IS “우리가 했다”

22일(현지시간) 밤 영국 맨체스터의 공연장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22명이 사망하고 59명이 다쳤다.

맨체스터 경찰에 따르면 테러는 이날 오후 10시35분 대형 실내 경기·공연장 맨체스터 아레나에서 미국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24)의 공연이 막 끝났을 때 벌어졌다. 목격자들은 매표소 인근에서 폭발물이 터져 공연장을 나가던 관객들을 덮었다고 전했다. 공연을 보러 온 2만여 명 중엔 10대 팬과 부모를 따라온 어린이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언론은 사망자 중 8세 소녀와 18세 여성 등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불특정 다수의 민간

인을 겨냥한 전형적인 ‘소프트 타겟’ 테러다. 맨체스터 경찰 당국은 “남성 용의자 1명이 사제 폭발물을 터뜨린 후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말했다. 23일엔 “테러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23세 남성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수니파 극단주의 조직인 이슬람국가(IS)는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칼리프 국가(IS를 가리킴)의 병사가 폭탄을 설치했다”며 배후를

자처했다. 공격을 계속하겠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이번 사건 희생자는 2005년 7월 런던 지하철 테러(사망 56명) 이후 최대 규모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이날 성명을 통해 “무방비 상태의 젊은이를 공격한 끔찍한 테러 공격”이라고 비난했다.

이기준 기자

foridealist@joongang.co.kr

▶▶ 관계기사 8면

2,770세대 대단지 프리미엄 新동백 롯데캐슬 에코

“집은 이런 기회에 사는 겁니다”



계약금 5%



이자지원 3년



인테리어비용 지원



입주비용 지원



잔금 100% 지원
(일부세대 한정)



취득세 지원(일부)



즉시입주 가능

마지막 가격으로 모십니다!

031-274-0570

